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인류의 현안 시적 언어로 응답

시집 펴낸 윤범모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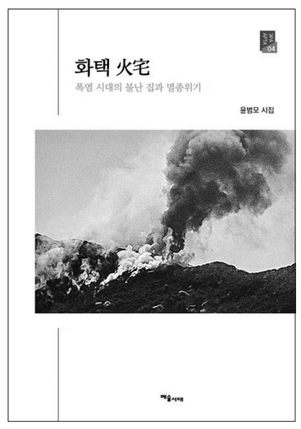
'화택 火宅' 예술시대서 선보여
제4부 구성 작품 100여편 수록
현대시 생태적 실천 모색 방점

자녀일 때와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공통으로 경험한 것 중 하나는 아이들은 불이 나든, 폭염 경보가 발동되든 놀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른다. 어른 눈에는 아이들이 딴짓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언제 속이 들까'라며 답답해할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의 속 없음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대 지구촌의 생태환경이 무너져내리는 현실 속 아이들이 위험을 감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의 기원이 담겨있다.

그는 저자 후기에서 이 시집의 향방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불경에 화택火宅 비유가 있다. '불난 집'. 집은 활활 불타고 있는데 집안의 아이들은 놀이에 정신 팔려 밖으로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밖에서 '불이야!' 아무리 소리쳐도 놀고 있는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나는 폭염경보를 접하면서 '화택' 비유를 떠올렸다. 물론 불난 집은 지구이고, 아이들은 우리 인간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다. 집은 불타고 있는데 집안의 아이들은 왜 딴짓만 하고 있을까. 화택! 나는 최근 몇 년간 생태 환경문제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화가들과의 창작 방법론 모임을 이끌면서 생태 환경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이 후기글은 그가 시집이 지향하는 바를 밝힌 부분이다. 단연 눈에 띄는 단어는 화택이다. 불교에서 차용한 말인데 낯설다. 그는 그만큼 종교적 신성성 안에서 이판사판의 오늘날 세속, 이를테면 세상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산문이 아닌, 운문으로 말이다. 주인공은 국내 대표 비엔날레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수장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는 윤범모 대표이사가 그다.



윤 대표는 요즘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으로 고심이 깊은 모양이다. 광주미술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은데 의도와는 달리 이런 저런 오해에 휘말리기도 했는 모양이다.

붉은 말의 해 '광주비엔날레'를 앞두고 준비에 착수, 짧은 기간 안에 성과라면 성과를 내야하는 입장이어서 저술의 힘을 보여주기도 딱히 어려운 형편이다. 윤 대표는 미술계에서 평론분야로는 독보적 자기 세계를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 대다수 미술평론을 등단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많은 현실에서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부문 당선으로 그 실력을 입증받은 바 있다.

그는 대학교수로 재직했고, 미술비평집 '한국미술론'과 '현대미술관장의 수첩', '미술의 전통과 시대정신' 등 수많은 책들을 펴냈다. 그러나 그의 이력 중 단연 돋보이는 직함은 시인이다. 미술계에서 접한 사람들은 그가 미술대 교수, 미술비평가, 미술사학자 등으로만 알고 있을 터다. 그러나 그는 당당히 2008년 '시와 시학'으로 시단에 등단한 현역 시인이다.

윤범모 대표이사

올들어 그는 두권의 책을 펴냈다. 올 2월에 '미술의 전통과 시대정신'을 펴낸데 이어 폭염시대의 불난 집과 멸종위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시집 '화택 火宅'을 예술시대에서 최근 펴냈다. 시집 '화택 火宅'은 '멀고 먼 해우소', '토함산 석굴암', '바람 미술관' 등에 이어 네번째 작품집이다. 시선집 '파도야, 미안하다'를 선보이기도 했다. 오늘날 한국 시단에서 보기 드문 생태문학적 실험의 성과이자 단순한 서정의 울림을 넘어,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라는 인류의 현안에 시적 언어로 응답한다는 평이다.

시인은 순전히 생태환경의 입장에서 생명체에 인격을 부여하는 듯하다. 잡초와 나무, 동물, 꽃 같은 존재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한편, 폭염은 물론이고 플라스틱 등 기후재앙의 키워드들을 통해 현실을 고발하면서 인간의 죄명을 폭로하는 시상을 발현한다.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맞선 생명 공동체의 발언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집은 제4부로 구성, 분주한 일상 틈틈이 창작한 시 100여편이 수록됐다.

제1부 '잡초 유시'에서는 억눌린 식물들의 독백을 통해 인간 문명의 오만을 고발하고, 제2부 '멸종위기'에서는 호랑이와 여우, 수달, 나비와 꽃까지 멸종위기 생명들의 장송곡을 노래한다. 이어 제3부 '화택'에서는 폭염, 온난화, 플라스틱, 패스트 패션 등 기후 재앙의 키워드들을 통해 현실을 고발하며 인간의 죄명을 폭로하고 있다.

마지막 제4부 '백척간두'에서는 벼랑 끝에 선 인간 존재의 자기성찰을 망라해 시집 전체를 윤리적 물음으로 귀결시킨다.

그의 시집 '화택'은 우리 시대의 시가 단순히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문명 비판적 증언이자 생태적 실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불타는 집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날카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키르기즈·라오스' 디지털 문화 관리자원 시스템 이양

ACC, 마나스·12절기 축제 등 콘텐츠화…4년 사업 마무리
국공립박물관 자료 등 4만건 디지털화, 2000명 교육 성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최근 키르기즈공화국(이하 키르기즈)과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이하 라오스)의 '디지털문화관리자원시스템' 이양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ACC는 지난 13일 키르기즈 비슈케크 국립역사박물관에서 '키르기즈공화국 디지털 문화자원관리시스템(KCRMS) 구축 및 문화콘텐츠개발 역량강화 지원(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공식 이양했다.

이날 열린 디지털 문화자원관리시스템 이양식은 4년간의 사업 성과를 마무리하고 키르기즈 문화정보청년정책부에 시스템을 공식 이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ACC 김상욱 전당장, 김광재 주 키르기스공화국 한국대사관 대사, 사유즈백나드리베코비치(Soyuzbek Nadyrbekov) 키르기즈 문화정보청년정책부 차관을 비롯해 5개 컨소시엄 박물관 관장 등 주요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양식은 식전 행사, 공식 부문, 서명식, 기관 시상 및 감사장 수여, 폐회식 및 핵심 기능 시연 등 다섯 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김상욱 전당장은 밀백 케메로비치 맘베타리에브(Mirbek Kemelovich Mambetaliev) 키르기즈 문화정보청년정책부 장관으로부터 특별 표창장을 수상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최근 키르기즈공화국과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의 '디지털문화관리자원 시스템' 이양식을 개최했다.

ACC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올해 본 무대에 오른 국제협력공연 '세메테이'는 키르기즈 민족 영웅인 '마나스' 대서사시를 원작으로 한다.

김 전당장은 '세메테이' 공연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완성해 선보인 점과 양국의 문화·예술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라오스 비엔티엔 국립박물관에서 라오스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LCRMS)을 공식 이양했다. 이번 이양식은 4년간의 사업 성과를 마무리하고 라오스 문화관광부에 시스템을 공식 이양하는 자리다. 행사에는 ACC 남찬우 기획운영관, 라오스 문화관광부 완씨 꼬아무아(Vansy Kouamoua) 차관 및 짠펜 캄퐁(Chanhphet Khamfong) 문예출판국장,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 이동규 공사참사관을 비롯해 3개 컨소시엄 박물관 관장 등 주요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양식은 사업경과보고 및 서명식, 감사장 수여, 4개년 성과 및 콘텐츠 시연, 힛씹성 전시 투어, 폐회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이양식과 함께 열린 '힛씹성 12전통: 기억을 엮고, 시간을 잇다' 전시는 이번 4차 년도 주요 사업 결과물로 라오스의 12절기(힛씹성) 축제에 대한 사진 및 영상 등 아카이브와 라오스 기록유산인 바이란(패엽경, 貝葉經) '에메랄드 불상 프라깨오(Phra Kaew) 이야기'를 토대로 제작된 실감 콘텐츠 등이 함께 구성됐으며 국립박물관에서 상설 운영 예정이다.

또 라오스 문화관광부 완씨 꼬아무아 차관은 2022년부터 추진된 ACC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함께 일궈낸 양국 문화예술분야 상호 이해증진과 라오스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감사 표창장과 함께 라오스 도서 20점을 전달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지니 올해 최고 인기곡은 우즈 '드라우닝'

2위 임영웅 '천국보다 아름다운'·3위 케데헌 '골든'

음원 플랫폼 지니에서 올 한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노래는 가수 우즈의 역주행 히트곡 '드라우닝'(Drowning)으로 나타났다.

KT지니뮤직은 이를 포함한 스트리밍 데이터 집계 결과인 '지니 2025 연말결산'을 공개했다.

2위는 임영웅의 '천국보다 아름다운', 3위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으로 집계됐다.

KT지니뮤직은 "1위 '드라우닝'은 지난 2023년 발매된 곡이지만 차트 역주행을 통해 올해 최고 인기곡으로 등극했다"고 소개했다.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을 살펴보면 10대는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아이 러브 유'(I LOVE YOU), 20·30대는 '드라우닝'이었다.

또 40대는 '골든', 50대 이상은 임영웅의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가장 많이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즈 단독 콘서트

연말 결산 차트에 새롭게 등장한 루키(신인)는 조째즈('모르시나요'), 올데이프로젝트('페이머스'), 키키('아이 두 미'), 하츠투하츠('더 체이스') 등이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K-컬처 뮤지엄에서 만날 수 있는 '이이남의 산수극장'.

인천국제공항으로 간 ACC 이이남 '산수극장'

내년 1월 27일까지 제1터미널 K-컬처 뮤지엄
지역작가 초대전 성과…서화·디지털 접목 4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이 내년 1월 27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K-컬처 뮤지엄에서 'ACC 지역작가 초대전-이이남의 산수극장' 속 미디어아트를 다시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ACC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산수극장'이라는 주제로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4점이 K-컬처 뮤지엄에서 관람객과 만난다.

이 중 한 점은 지난 4~7월 ACC 복합전시5관에서 열린 'ACC 지역작가 초대전-이이남의 산수극장' 속 메인 작품인 '산수극장'이다.

이번 전시는 ACC의 전시 성과를 확산하고, ACC가 기획·제작·지원한 우수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소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ACC의 지역작가 초대전인 '이이남의 산수극장'(4. 4~7. 6)은 ACC가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월 동안 총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이남 작가는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활동하며 고전 서화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작업을 선보여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과 다시 만나는 이이남 작가의 작품 '산수극장'은 동양의 고전 산수화(山水畵)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로,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등 한국의 대표적인 진경산수화를 현대적인 디지털 픽셀과 결합시켰다.

관람객은 멈춰 있는 옛 그림 속으로 들어가 폭포가 쏟아지고, 새가 날아다니며, 사계절이 순환하는 시공간의 변화를 체험한다.

이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 과거와 현재, 자연과 도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국적 미의식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가로로 길게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의 특성을 활용해 산수화의 파노라마적 웅장함을 극대화했다.

ACC는 이번 전시를 위해 남도의 아름다움과 작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한국적 아름다움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산수극장' 작품을 K-컬처 뮤지엄 공간 특성에 맞춰 재구성했다.

이 작품은 K-컬처 뮤지엄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와 3관 전시실을 통해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가 제작·지원해 창제작된 많은 작품들이 순회전시를 비롯, 다양한 국내외 기관에 콘텐츠 유통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ACC가 만든 수준높은 작품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 관람객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